

#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남재철 교수 초청 특강

손수민 기자 | 승인 2024.11.19 17:28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주제로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19일 남재철 교수를 초청해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중부매일 손수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가 19일 충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前 기상청장)를 초청해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

안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남재철 교수는 제12대 기상청장을 지낸 기상 분야 전문가로 강연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 일화, 기상청장으로 부임했을 때 겪은 일 등으로 흥미를 이끌었다.

남 교수는 "기후위기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심각성을 깨닫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곡물 대외 의존성이 높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육종기술 실용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친환경에너지 활용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농어촌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현수 본부장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어 강연 내용이 더욱 와닿았다"며 "새로운 기술,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농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해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에는 최현수 본부장, 7개 지사 지사장, 본부 및 지사 직원 등 60명이 참석했다.



**손수민 기자** [idea2612@jbnews.com](mailto:idea2612@jbnews.com)